

10 월의 육계전망

장민기
버들농원 대표

“불황에 대한 감각이 무뎠고 있다”

□서언

작년 이맘때 좋았으니 금년에도 틀림없겠지, 삼복, 추석, 크리스마스, 구정 등 특정한 날에 대한 기대가 우리 육계인에게는 특히 심한것 같다. 벌써부터 연말병아리 받기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선수금까지 지불해 가면서 병아리값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병아리 물량은 자꾸 늘어나고 결국 그것이 자기무덤을 파고마는 불행한 씨앗이 되고 말것이다. 700원대 육계시세가 1개월이상 지속되면 오히려 과거를 되돌아 볼 여유를 갖고 자기 주머니 사정을 계산해 보는 슬기를 가져보직하다. 지금이 불황의 초기단계가 아닌가 여겨지며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황을 두려워 할 알고 적절

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분석

8월의 육계전기 사료량은 복을 겨냥한 5월의 생산량과 맞먹는 54,046%으로 9월의 닭값이 700원대를 형성할 만큼 생산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후기사료는 61,043%이고 총 육계사료가 115,089%으로 전년도에 비해 35.9%가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종계사료가 5월 이후 감소추세에서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8월의 생산량이 25,108%으로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병아리생산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을것 같다.

종계(P.S)입식이 8월 한달동안 40만수를 상회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여 91년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크게 높여 육계가격에 치명타를 입힐것 같다.

□전망

추석 이후는 물론 금년내내 육계값은 상당히 어렵게 여겨진다. 육계업계의 분위기 자체가 육계값 회복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입추열기가 문제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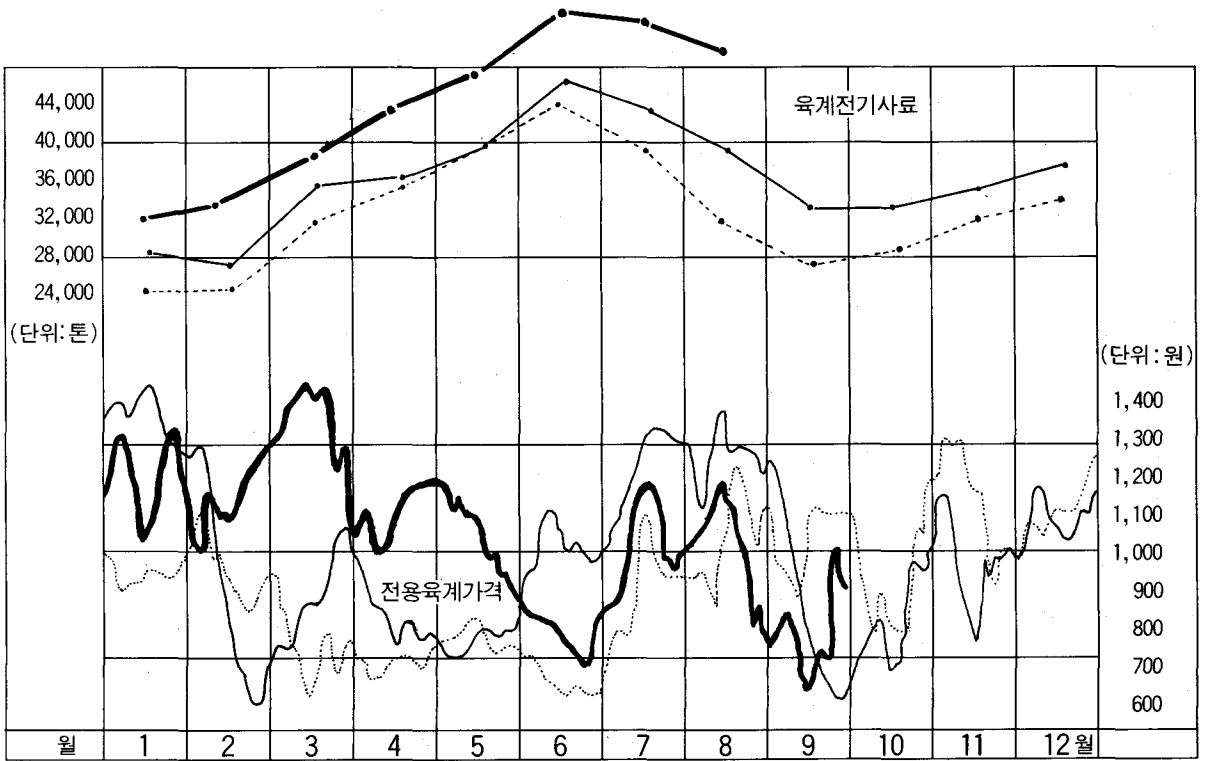
700원내외의 육계시세에서도 400원 병아리가 서슴없이 입추됨에 따라 병아리 생산량이 줄기는 커녕 증가추세가 계속 되어 육계값은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하절기이후 증가된 생산량 자체는 10%내외의 감소세이나 소비량은 30% 가까이 줄어 향후 생산이 소비를 압도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약세권에서 맴돌것 같다.

10월 중순 이후 육계값이 회복되지 못하면 현재의 병아리 생산증가 추세로 보아 연말 닭값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입추만이 농사가 아니고 판매에 역점을 두는 육계사육이 필요하겠다.

표 1. 10대 사료업체의 주간사료 생산량

	7				8				9			
	8-14	15-21	22-28	29-4	5-11	12-18	19-25	26-1	2-8	9-15	16-22	
전 기	5,254	5,257	4,865	4,693	3,564	4,449	4,717	4,904	3,932	3,166	3,391	
후 기	5,375	5,300	4,886	5,279	5,494	4,463	5,543	6,101	5,421	3,745	4,786	
계	10,629	10,557	9,751	9,972	9,058	8,912	10,260	11,005	9,353	6,911	8,177	
총계 89	1,247	1,171	1,157	1,081	1,242	1,211	1,346	1,302	1,709	1,062	1,576	
총계 90	1,476	1,335	1,364	1,462	1,464	1,474	1,627	1,551	1,529	1,598	1,650	



월별 육계전기사료 생산량과 전용육계가격 '88----'89—'90—

표 2. 사료, 병아리(생산수, 잠재력)가격 비교

월	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병아리 생산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비교*
		전기	후기				
1	87	21.7	27.4	15,630	16,208	1,002	16,000
	88	24.0	32.8	15,000	21,597	947	
	89	28.4	28.3	17,765	22,532	1,363	
	90	32.3	33.8	20,188	20,471	1,232	
	90	32.3	33.8	20,188	20,471	1,232	
2	87	23.4	31.0	14,625	17,088	726	17,000
	88	24.1	31.0	15,063	22,637	951	
	89	27.2	33.8	17,000	23,373	900	
	90	33.1	32.5	20,688	20,983	1,163	
	90	33.1	32.5	20,688	20,983	1,163	
3	87	26.5	35.4	16,563	17,931	816	18,500
	88	31.8	40.5	19,875	23,710	712	
	89	35.7	41.4	22,319	24,283	829	
	90	38.8	35.9	24,250	22,136	1,336	
	90	38.8	35.9	24,250	22,136	1,336	
4	87	30.3	37.9	18,938	19,003	880	21,000
	88	35.2	46.6	22,000	24,983	682	
	89	36.0	43.9	22,500	25,258	803	
	90	44.4	38.7	27,750	23,597	1,179	
	90	44.4	38.7	27,750	23,597	1,179	
5	87	32.8	39.9	20,500	19,854	972	24,000
	88	39.6	49.7	24,750	25,471	747	
	89	39.6	46.5	23,063	25,477	779	
	90	56.1	47.8	35,063	24,435	983	
	90	56.1	47.8	35,063	24,435	983	
6	87	40.1	50.1	25,063	20,108	816	26,000
	88	43.9	55.8	27,438	24,665	646	
	89	47.1	48.1	29,438	22,321	998	
	90	61.4	59.0	38,375	24,914	780	
	90	61.4	59.0	38,375	24,914	780	

7	87	38.2	62.6	23,875	19,050	858	20,000	
	88	38.7	59.8	24,188	22,022	908		
	89	44.2	50.7	27,625	23,191	1,191		
8	90	60.3	63.1	37,688	24,509	1,050	28,000	
	87	34.3	56.2	21,438	17,962	602		18,000
	88	31.7	42.0	19,813	21,192	1,055		
	89	39.2	45.4	24,500	20,542	1,265		
	90	54.0	61.0	33,750	23,010	1,005		
9	87	29.2	56.9	18,250	17,612	511	16,000	
	88	26.9	38.3	16,813	19,813	1,014		
	89	33.5	46.8	20,938	18,845	814		
	90				21,919			23,000
	90				21,919			
10	87	25.3	49.9	15,813	17,946	447	17,500	
	88	28.5	33.0	17,813	19,618	912		
	89	33.5	39.9	20,938	19,087	860		
	90				22,117			26,000
	90				22,117			
11	87	23.6	40.3	14,774	17,162	611	15,500	
	88	31.9	35.3	19,938	20,824	1,094		
	89	35.8	38.2	22,375	20,072	973		
	90				23,615			23,000
	90				23,615			
12	87	27.0	39.6	16,875	20,337	731	17,000	
	88	33.9	40.8	21,188	20,082	1,117		
	89	37.6	41.6	23,500	20,125	1,111		
	90				25,052			21,000
	90				25,052			
계	87	352.5	528.1	222,344	220,261	747	228,500	
	88	389.6	506.6	243,498	266,614	899		
	89	437.8	504.6	271,961	265,106	990		
	90				267,758			263,500
	90				267,758			

*가격안정이 기대되는 해당월의 임식적정수